

포장과 인쇄산업 상호 발전 기대

하영백 / 부경대학교 화상정보공학부 인쇄정보공학과 강사(박사)

(사)한국포장협회가 실시한 제 4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부경대학교 인쇄정보공학과 강사로 출강 중인 하영백 박사가 총점 1백점 만점에 92.2점을 획득, 우수 수료자로 수상했다.

하영백 강사는 “포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어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포장기술관리사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포장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경대학교 인쇄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하영백 박사는 그동안 충남 중부대학교 인쇄공학과, 인천대학, 서울정수기능대학 인쇄매체과, 신구대학 Graphic Arts과, 부경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해왔다. 현재는 신구대학,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 제지공학과에서 박사 후 연수과정(Post-Doc)을 수행하고 있는 인쇄학도이다.

하영백 박사는 “포장과 인쇄는 함께 가야한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하 박사가 포장기술관리사 교재에 인쇄분야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아쉬움으로 꼽는다.



그럼에도 그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교재와 각 분야별로 구분되어진 일정에 따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영백 박사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포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만들어 강의를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포장관련 업체들은 모두 인쇄 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포장을 하면서 인쇄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는 하영백 박사. 그는 “산업적인 측면이나 학문적인 측면이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미흡한 포장과 인쇄 산업이 수평선을 그릴 수 있도록 협회나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했다.

종합과학인 ‘포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포장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포장과 인쇄산업이 상호 협력하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며, 인쇄학도 배출의 중심에 설 하영백 강사의 지속적인 도전을 주목해 본다. ☎

박초혜 기자